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5. 6. 8.(월) 13:00 ~ 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백영흠(위원장), 석대권, 정명섭, 홍형순, 김봉렬, 김왕직, 이승우(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성주 한개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1
2	성주 한개마을 내 비석 설치	2
3	영주 무섬마을 내 휴게쉼터 조성	3
4	경주 양동마을 내 소방파출소 신축 허가사항 변경	4
5	안동 하회마을 내 마을회관 사주문 및 담장 설치	6
6	낙안성 박의준 가옥 내 축사 용도변경	7
7	양동마을 주변 통신용안테나 설치	8
8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10
9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지조성	12
10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13동 신축	13
11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주택증축 및 용도변경	15
12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17
13	송소고택 주변 마을체험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	18
14	송소고택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20
15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	21
16	거촌리 쌍벽당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22
17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24
18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주변 신축공장 태양열집열판 설치	26
19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28
20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마을회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	29
21	영동 김찬판고택 주변 의용소방대건물 증축	31
22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32
23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도로포장	34
24	부안 동문안 당산 주변 도로포장	36
25	안동 향산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8
【검토사항】		
26	안동 풍산김씨 종택 지정 검토	42
27	예천 감로루 지정 검토	54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5-04-01

1. 성주 한개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내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24번지(이명식가옥 내)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1동 신축

○ 구조 : 한식목구조(단층), 연면적 : 82.63㎡, 높이 : 7.43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5.29.)

○ 성주 한개마을 이명식가옥 내 단독주택(구조 : 한식목구조, 연면적 82.63㎡)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명식가옥은 한개마을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 전(2000년대 초반)에 현대식 건물로 안채를 건립하였음

○ 금회 신청안은 안채 서측 편에 주택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976년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물배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1976년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물배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976년도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물규모 추정 면적(22㎡, 25㎡)

바. 의결사항

○ 부결

- 1976년 항공사진의 건물배치, 규모 등과 부적합

안건번호 민속 2015-04-02

2. 성주 한개마을 내 비석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내 비석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제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내 비석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264번지

(4) 신청내용 : 비석 3개 설치 및 주변 정비(기단 설치 등)

○ 성덕비(2.0m×2.5m×3.6m), 어록비(1.3m×1.1m×2.9m), 해설비(1.8m×0.67m×2.0m) 설치

○ 비석 설치를 위한 기단(12.0m×5.4m×0.8m) 설치

※ 참고사항

- 유허비 건립 예정지인 서편 논은 보존가치가 있고, 유허비 건립은 마을 주민간 위화감 조성 및 경관 저해 우려가 있음을 마을 주민들이 진정서 제출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 2015.5.29.)

○ 한개마을 내 전면 서측 논(지정구역 내)에 신청인(이규석)의 증조부인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선생의 성덕비, 조부인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선생의 어록비, 비석 설명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비석 설치 위치와 규모 등이 한개마을과 어울리지 않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비석 설치 위치와 규모 등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비석 설치 위치와 규모 등이 적절하지 않음

안건번호 민속 2015-04-03

3. 영주 무섬마을 내 휴게쉼터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휴게쉼터를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내 휴게쉼터 조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766

(4) 신청내용 : 무섬마을 쉼터 조성

○ 의자 24개 설치, 자연석박석깔기 105㎡, 수목식재, 비석 건립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5.28.)

○ 외나무다리를 오가는 관람객의 쉼터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마을 역사와 무관한 노래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노래비 및 자연석 박석 깔기는 제외하고 의자는 나무재질로 조정하도록 하며, 수목 식재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노래비 및 자연석 박석깔기 제외, 의자는 나무 재질로 조정, 수목 식재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4-04

4. 경주 양동마을 내 소방파출소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내 소방파출소 신축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사항이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소방파출소 신축을 2015년 1차 민속분과 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진입로 포장재료 변경, 소나무이식 위치변경 등을 위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작성 중)

(1) 신 청 인 : 경주소방서장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6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5번지 9호(지정구역 내)

(4)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구 분 / 항 목	당초 허가 사항 ('15년 1차 민속분과 회의)	변경 신청 내용	비 고
서측진입로 포장재료	점토블럭	마사토+잔디블록	
소나무 이식 위치	대지 북측	북서측 일부제외, 하천구간 추가	
동측 자연석 쌓기구간	자연석쌓기 (H:0.6m,L:47m) 옹벽쌓기 (H:1.0~4.5m,L:10m)	자연석쌓기+메쉬휀스 (H:1.0m,L:23m+H:1.2m,L:22m) 자연석쌓기+메쉬휀스 (H:1.0~2.5m,L:11m+H:1.2m+L:10m)	기존 자연석 쌓기 구간 연장 (L:47m)오기
보안등	H:8.7m,태양광풍력발전	H:4.0m 전기동력	
건축기초구조	전체 파일 기초	소방차고 하부 파일기초 기타 팽이말뚝 보강 위 온통기초	
연면적 변경	지상1층 71.76㎡ 지상2층 145.35㎡ 계 217.11㎡	지하1층 71.52㎡ 지상1층 146.42㎡ 계 217.94㎡	계산상오류로 0.83㎡ 증가

라. 검토의견

○ 점토블럭을 마사토 포장 및 잔디블럭 포장으로 변경, 소나무이식 위치 변경, 보안등 높이 측소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경사진 옹벽 위는 석축으로 변경하지 말고 기존 옹벽 형태로 설치하고, 메시휀스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양동마을 경관에 어울리는 휀스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경사진 옹벽 위는 석축으로 변경하지 말고 기존 옹벽 형태로 설치하고, 메시휀스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을 경관에 어울리게 조정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4-05

5. 안동 하회마을 내 마을회관 사주문 및 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마을회관의 사주문 및 담장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제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마을회관 주변에 사주문 및 담장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9

(4) 신청내용 : 하회마을 마을회관에 사주문 및 담장 설치

○ 사주문 신축 : 건축면적 3.64㎡, 높이 3.54m(맞배지붕)

○ 담장 추가 설치 : 와편담장(높이 1.58m, 연장 27.0m)

라. 검토의견

○ 마을회관 출입부분에 사주문을 설치하고, 동측 부분에 와편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06

6. 낙안성 박의준 가옥 내 축사 용도변경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낙안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제 제92호 「낙안성 박의준 가옥」 내 축사 용도를 변경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중요민속문화재 제92호 낙안성 박의준 가옥 내 축사 용도 변경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92호「낙안성 박의준 가옥」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 신청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67번지 1호(지정구역 내)

(4) 신청내용 : 축사(46.98㎡)를 방으로 용도 변경

라. 검토의견

○ 박의준 가옥 내 축사는 201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원한 건물로,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축사를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안건번호 민속 2015-04-07

7. 경주 양동마을 주변 통신용안테나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주변 통신용안테나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양동마을 주변 통신용안테나 설치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주)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713-3

(4) 추진경과

○ 2015.4.23 : 양동마을 주변 통신용안테나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접수

○ 2015.5.18 : 현지조사 실시

○ 2015.5.21 : 사업계획 수정공문 접수

(5) 신청내용

○ 당초(현지조사 전) : 지상노출높이 16m 통신용 안테나 설치

○ 수정(현지조사 후) : 지상노출높이 11.5m 통신용 안테나 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 5. 18)

○ 이미 마을 진입로에 KTX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마을 진입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그 규모와 위치가 부적절하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실시 후 위치와 높이를 조정(16m→11.5m)하여 신청한 사안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보류

○ 도면자료,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5-04-08

8.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2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152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630번지

(4) 추진경과

○ 2014.12.11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접수

○ 2015.02.02 :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

○ 2015.03.18 : 설계변경 후 재신청

○ 2015.04.02 : 신청인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 관련 보완자료 제출

* 보완자료 : 사업예정지에 건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위성사진(2005.5월 촬영)

○ 2015.04.06 :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추가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 후 재검토)

○ 2015.05.28 : 현지조사 실시

(5) 신청내용

구분	연면적	최고높이	구조	재료
기신청 ('14.12월)	84.0㎡	5.4m(1층)	경량철골조	- 벽 : 시멘트사이딩 - 지붕 : 아스팔트싱글
재신청 ('15.3월)	86.5㎡	5.2m(1층)	경량철골조	- 벽 : 황토블럭 - 지붕 : 금속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 5. 28)

○ 지난 신청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전통한옥과 어느 정도 조화되도록 하였으나, 진입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진입부 경관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가옥 전면에 차폐조경을 식재하도록 함

안건번호 민속 2015-04-09

9.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주변 농지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152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604-2

(4) 신청내용 : 농지(밭)조성을 위한 성토

○ 규모 : 토지면적 1,768㎡, 1m이내 성토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 5. 28)

○ 기존의 논을 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도서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기존의 논을 밭으로 조성하는 것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10

10.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13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가옥」주변 단독주택 13동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이격거리 약 9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보존구역(신축불가, 기존건물 제·개축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가옥」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58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13동 신축(13동의 건축규모가 모두 동일)

○ 규모 : 높이 8m/2층, 연면적 122㎡

○ 구조 : 적벽돌 치장쌓기, 경사지붕(스페니시 기와 마감)

(5) 신청경위

○ 2014.12월 : 단독주택 16동 신축 신청(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불허)

○ 2015.02월 : 단독주택 14동 신축 신청(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불허)

○ 2015.04월 : 단독주택 13동 신축 신청(보류결정/현지조사 후 재검토)

○ 2015.05월 : 단독주택 13동 신축 현지조사 실시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교수 / 2015. 5. 1)

○ 동 사업은 백수현가옥 주변을 휘두르고 있는 산의 끝자락(보존지역) 일부에 단독주택 13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내용 등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부지는 백수현가옥의 진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좌청룡, 우백호) 끝자락의 숲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지대 또한 높아 아무리 차폐조경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재 주변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문화재 주변에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있고, 조망되지 않는 야산너머에는 공장 등의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허용할 경우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다시 또 상실하게 하는 것이며

- 획일적인 디자인의 건물을 13동이나 문화재 인근에 신축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가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의 끝자락에 단독주택 13동 신축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가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의 끝자락에 단독주택 13동 신축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5-04-11

11.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주택증축 및 용도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가옥」주변 가옥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주택 증축 및 용도변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30m)으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함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경사지붕 7.5m이하/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가옥」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8-1번지

(4) 신청내용 : 용도변경 및 주택증축

○ 용도변경 : 기존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증축 : 눈썹지붕(기와지붕, 황토벽마감)을 덧다는 형식으로 21㎡증축

* 용도변경 사유 :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자원화사업'에 신청인이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을 전통음식체험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교수 / 2015. 5. 1)

○ 양주 백수현가옥에서 약 30미터 이격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한옥양식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비좁은 주방시설 확충을 위해 눈썹지붕을 덧달아 증축하는 사업으로

-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농가주택과 농가창고에 한정된 용도제한에 저촉되어 현상변경신청이 접수된 사항임

○ 물론 문화재 주변 경관보존과 함께 문화재 주변 환경이 각종 상업시설로 변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화재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수준인지 여부, 해당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상변경 신청한 시설물이 한옥양식 건물로 문화재 주변에 이질감을 일으키지 않는 점, 마을 내 식당이 없어 문화재 체험 및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점(약 2km 떨어진 남면초등학교 주변에 식당이 일부 있음),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점을 감안할 때

- 용도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문화재 주변 경관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축부분의 설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식기와지붕, 황토벽 마감과 어울리지 않는 출입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출입문양식으로 설계를 변경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증축 부분의 출입문은 전통적인 양식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4-12

12.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백수현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이격거리 약18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보존구역(신축불가, 기존건물 제·개축 허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양주 백수현가옥」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282-3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산8번지

(4) 신청내용 : 한옥양식의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높이 5m, 건축면적 100㎡

○ 구조 : 전통한옥 양식(한식기와, 황토벽 마감)

※ 심의사례

- 2012.4월 동일필지에 한옥5동 신축 불허(절토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

라. 검토의견

○ 지난 2012.4월 동일 필지에 한옥 5동 신축이 불허되었던 곳으로 문화재의 주산을 절토(약6m)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산을 절토하여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민속 2015-04-13

13. 송소고택 주변 마을체험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송소고택」주변 마을 체험관 신축 허가사항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송소고택 주변 마을체험관 신축공사 허가사항 변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거리 약 105m)으로 기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였음

※ 2구역(경사지붕 7.5m 이하/ 농가형 주택, 창고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송군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송소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07-12번지

(4) 추진경과

○ 2014.12월 : 마을체험관 신축허가(높이 6.5m, 건축면적 136.63㎡/ 한옥양식)

○ 2015.04월 : 기허가사항 변경허가 요청

○ 2015.05월 : 현상변경 현지조사 실시(○○○ 위원장)

○ 2015.5.21 : 허가사항 변경내용 중 증축공사 계획부분 취소

(5) 신청내용

○ 당초(현지조사 전) : 건물위치 3m 이동, 창고용도의 공간 14㎡ 증축

○ 수정(현지조사 후) : 건물위치 3m이동

※ 2015.5.1 실시한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창고증축 계획 취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 5. 1)

○ 당초 허가한 위치에서 우측으로 약간의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은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건물의 배면에 창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배면이기는 하나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면하고 있으므로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증축계획은 신청인이 취소를 하였으며, 건물을 3m 위치 이동하는 것은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14

14. 송소고택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송소고택」주변 농업용 창고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송소고택 주변 농업용 창고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약 490m)으로 규모는 허용기준 이내이나 용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경사지붕 7.5m 이하/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송소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73-1번지

(4) 신청내용 : 농업용 창고신축

○ 규모 : 높이 5.2m, 건축면적 43.5㎡

○ 구조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5. 5. 1)

○ 사업부지내 기존에 있는 창고 옆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문화재와 490m 이격되어 조망이 안되는 곳으로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15

15.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47호「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1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47호「봉화 설매치 3겹 까치구멍집」

○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482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신축

○ 규모 : 높이 5.9m 건축면적 90㎡

○ 구조 :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아스팔트 싱글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 5. 28)

○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는 비교적 먼거리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바로 옆에 경상북도 문화재와 접하고 있어 경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신축 예정지 바로 옆에 시·도지정문화재가 위치하여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우선 심의

안건번호 민속 2015-04-16

16. 거촌리 쌍벽당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0호「거촌리 쌍벽당」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촌리 쌍벽당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5구역으로 일부 사업내용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봉화군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70호「거촌리 쌍벽당」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48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거촌리 일원

(4) 신청내용 : 관광자원화사업

공사 주요내용	규모	심의대상 여부
○마을안길 포장 공사	9,033㎥	도로포장 공사는 문화재청 심의대상
○토석담장 설치	1,712m	담장설치 구간 중 일부구간이 1구역에 위치하여 심의대상 * 1구역(원지형보존지역)
○가로등 설치	20개	공익을 위한 시설물 건축 등은 심의대상
○공원 조성	4개소	공익을 위한 시설물 건축 등은 심의대상
○가옥 철거	41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가옥철거는 심의대상이 아님

* 거촌리 쌍벽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 공통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도로, 교량 등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청 허가사항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 2015. 5. 28)

ㅇ 쌍벽당 옆에 위치한 수온당(시도지정문화재) 앞의 정자는 전방 시선상 최대한 벗어난 곳에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고, 연지의 형태는 트랜치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나머지는 도서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ㅇ 마을 내 기존 도로의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는 점, 노후된 콘크리트 벽돌 담장을 철거하여 한식담장으로 설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 도로 중 마을 초입의 도로(폭 약 5m, 길이 약 20m)부분만 폭을 5m로 확대하고 나머지 도로는 규모변동 없음

ㅇ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정자의 규모와 위치, 연지의 형태(트랜치 조사 실시)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정자의 규모와 위치, 연지의 형태(트랜치 조사 실시)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5-04-17

17.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주변 농업용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45호「청도 임당리 김씨고택」주변 농업용창고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주변 농업용 창고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약 160m)으로 규모는 허용기준 이내이나 용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경사지붕 12m/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45호「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번지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769번지

(4) 신청내용 : 농업용 창고신축

○ 규모 : 높이 4.7m 건축면적 98㎡

○ 구조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5. 5. 14)

○ 계획된 창고는 임당리 김씨고택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주택과 창고 등 기존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신축으로 인하여 문화재와 상호 조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역사문화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창고의 최고높이는 4.7m로 바로 이웃한 주택의 최고높이보다 낮고 지붕은 경사 박공지붕으로 주변의 다른 주택와 동일한 형식이며 재료는 아스팔트 싱글(황토색)로 설계되어 주변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울리도록 계획되어 있음

마. 검토의견

○ 허용기준 규모 내에서 용도만 다른 사항(신청 : 농업용 창고, 기준 :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으로서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18

18.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주변 신축공장 태양열집열판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윤보선전대통령생가」주변 신축공장 지붕에 태양열집열판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주변 신축공장 지붕에 태양열집열판 설치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과 3구역(이격거리 약 2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이하), 3구역(평지붕 12m, 경사지붕 15m이하)

** 사업부지가 2개의 구역에 중첩된 경우 '현상변경 처리지침'(예규143호)에 따라 상위 구역의 기준을 적용(2, 3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2구역의 기준을 적용)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윤보선전대통령생가」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746번지

(4) 추진경과

○ 2014.10월 : 평지붕 8m규모의 공장신축을 아산시에서 허가

* 공장규모가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 기준 이내이므로 아산시에서 자체 허가

○ 2015.05월 : 신축공장 지붕에 태양열집열판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

* 태양열집열판 설치시 공장의 최고높이가 약 13m로 높아져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문화재청에 허가신청 접수

○ 2015.05.22 : 현지조사 실시

(5) 신청내용 : 신축공장 지붕위 태양열 집열판 설치

○ 규모 : 태양열 집열판 설치 후 공장 최고높이 12.5m / 건축면적 7,311㎡

라. 현지조사 의견(ㅇㅇㅇ / 2015. 5. 22)

○ 동 사업은 지난 2014.10월 아산시에서 허가한 신축공장 지붕에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열집열판 설치 시 최고높이가 약13m로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당초 공장은 8m의 평지붕 건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내의 규모인 관계로 아산시에서 자체처리 함

○ 지난 2014년 초 금번 사업예정지에서 약 300m이격된(3구역) 공장지붕에도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 사업예정지가 문화재 뒤편으로 약 2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에 위치한 언덕으로 인해 조망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유사 허가사례)

- 신청위치 : 3구역(윤보선전대통령생가와 약 400m, 금번 신청지와는 약 300m이격)
- 신청내용 : 기존 공장 지붕위 태양열 집열판 설치
- 심의결과 : 가결(2014.2월 문화재위원회)

마. 검토의견

○ 문화재와 상호 조망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19

19.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제원 박도수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약49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경사지붕 7.5m이하/주거 및 농업용창고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제원 박도수가옥」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127-1번지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높이 7.65m/2층, 건축면적 89㎡, 연면적 125㎡

○ 구조 : 황토벽돌구조, 경사지붕(아스팔트 싱글마감)

라. 검토의견

○ 문화재와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고, 문화재와 사업예정지 사이에 이미 형성된 마을로 인해 상호조망이 사실상 어려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20

20.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마을회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제원 정원태가옥」주변 마을회관 신축 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마을회관 신축공사 기 허가사항 변경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약 300m)으로, 신축 건물의 규모는 허용기준 이내이나 용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3구역(경사지붕 7.5m이하/주거 및 농업용창고에 한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천시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제원 정원태가옥」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21번지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월림리 645-5번지 외 10필지

(4) 신청경위

○ 2012.12월 : 마을회관 신축 허가

○ 2014.02월 : 허가사항 1차 변경허가(족구장, 공원시설 추가 등)

○ 2015.05월 : 허가사항 2차 변경허가 신청(마을회의실, 족욕장, 파고라 등 추가)

(5) 변경내용

구 분		최초 허가	1차 변경	2차 변경
총 면적		5,456㎡	9,893㎡	10,504㎡
건축물 면 적	주1동(마을회관)	411.89㎡	401.84㎡	변경 없음
	주2동(마을회의실)	-	-	198.22㎡
	부1동(정자)	10.89㎡	9.73㎡	변경 없음
족 구 장		-	264㎡	345㎡
족 욕 장		-	-	1개소(L=22.6m,H=0.7m)
파 고 라		-	2개소	3개소
풋살장		1,062㎡	1,062㎡	변경 없음

* 건물 위주로 작성한 내용이며, 조경, 운동기구 설치 등은 생략하였음

라. 검토의견

○ 이미 1차례 변경허가 한 사항을 추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물의 디자인이 문화재 주변 경관 및 기 허가된 마을회관의 외형과 조화로운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가결

안건번호 민속 2015-04-21

21.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의용소방대건물 증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영동 김참판고택」주변 소방소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소방소증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20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원지형보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동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영동 김참판고택」

○ 소 재 지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

(3) 신청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204-2

(4) 신청내용 : 의용소방대건물 차고증축

○ 규모 : 높이 4m, 건축면적 40㎡

○ 구조 : 경량철골구조

라. 검토의견

○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 2층 건물 북측면에 차고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와 사업예정지간에 위치한 주택과 수목으로 인해 상호조망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벽 재료, 색상 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벽 재료, 색상 등을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4-22

22.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단독주택신축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거리 약 130m)으로 규모는 허용기준 이내이나, 건물의 층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경사지붕 7.5m/1층)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가옥」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3) 신청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348번지

(4) 추진경과

○ 2015.03.16 :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접수

○ 2015.04.02 :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5.04.24 : 현지조사 실시

(5)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규모 : 높이 7.4m, 건축면적 76㎡

○ 구조 : 철근큰크리트, 경사지붕(스페니시기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 4. 24)

○ 문화재 주변에 이미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문화재와 사업예정지 간 상호조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신축을 허용하더라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붕설계 중 일부 원형지붕으로 설계한 부분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맞게 경사지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원형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원형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4-23

23.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도로포장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가옥」주변 도로포장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세종 유계화가옥 주변 도로포장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지정구역 일부와「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거리 130m)으로 사업예정지 일부가 지정구역을 포함함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경사지붕 7.5m/1층)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유계화가옥」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3) 신청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385번지

(4) 추진경과

○ 2015.03.16 : 도로포장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접수

○ 2015.04.02 :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5.04.24 : 현지조사 실시

(5) 신청내용 : 도로포장(길이 246m, 폭 6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5. 4. 24)

○ 동 사업은 세종유계화가옥 주변 도로를(지정구역 일부와 2구역에 위치) 마을 주민 차량과 소방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확장하는 공사로, 이를 허용할 지 여부는 문화재의 '입지여건에 미치는 영향',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물론 현재 문화재 주변이 이미 상당부분 개발(철로, 공장, 주거지역 등)되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또다시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함이 적절할 것임

○ 공사구간은 마을 주변을 휘두르는 폭 4~5m 가량의 도로에서 뻗어나와 마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마을길로, 문화재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직선거리로 15m 이격)

- 현재의 도로가 좁아(약 2~3m) 마을주민의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6m 폭의 도로로 확장할 경우 문화재를 마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내 문화재의 입지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마을 주변에 이미 형성된 도로와 비슷한 규모로 공사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라는 목적은 다음 사유로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남동쪽에 위치한 119센터에서 출발한 차량은 문화재 남측의 농로길보다, 마을 주변의 큰길을 거쳐 북측에 위치한 도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확장예정인 도로와 문화재 사이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위치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마을 내 기존의 다른 소로(폭 약 4~5m)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마을 내 기존의 다른 소로(약 4~5m)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 조정

안건번호 민속 2015-04-24

24. 부안 동문안 당산 주변 도로포장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부안 동문안 당산」주변에 도로를 포장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신청인이 부안 동문안 당산 주변(보존지역)에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안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9호「부안 동문안 당산」

○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2

(3) 신청위치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2 동문안 당산 인접도로

(4) 신청내용 : 부안 동문안 당산 주변 도로 확장 포장공사

○ 부안도시지역 소로3-59호 부안읍 동중리 386-10번지 25m(폭6.0m) 미개설로 마을안길 도로폭이 협소하여 당산에 차량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담장부(부안읍 동중리 386-9번지/110㎡)를 매입하여 마을 안길을 확포장하여 동문안 당산을 보호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위원), ○ ○ ○ (충남역사박물관 문화사업팀장)<'15.5.12>

○ 현재 동문안 당산 앞 2m 정도 도로를 확포장하려는 것으로 당산 맞은편 주유소 담장을 허물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한 당산에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당산 보호에 도움이 됨.

○ 동문안 당산이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당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2) 검토 의견

○ 당산 보호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당산보호를 위한 공간을 확보토록 함

안건번호 민속 2015-04-25

25. 안동 향산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안동 향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안동 향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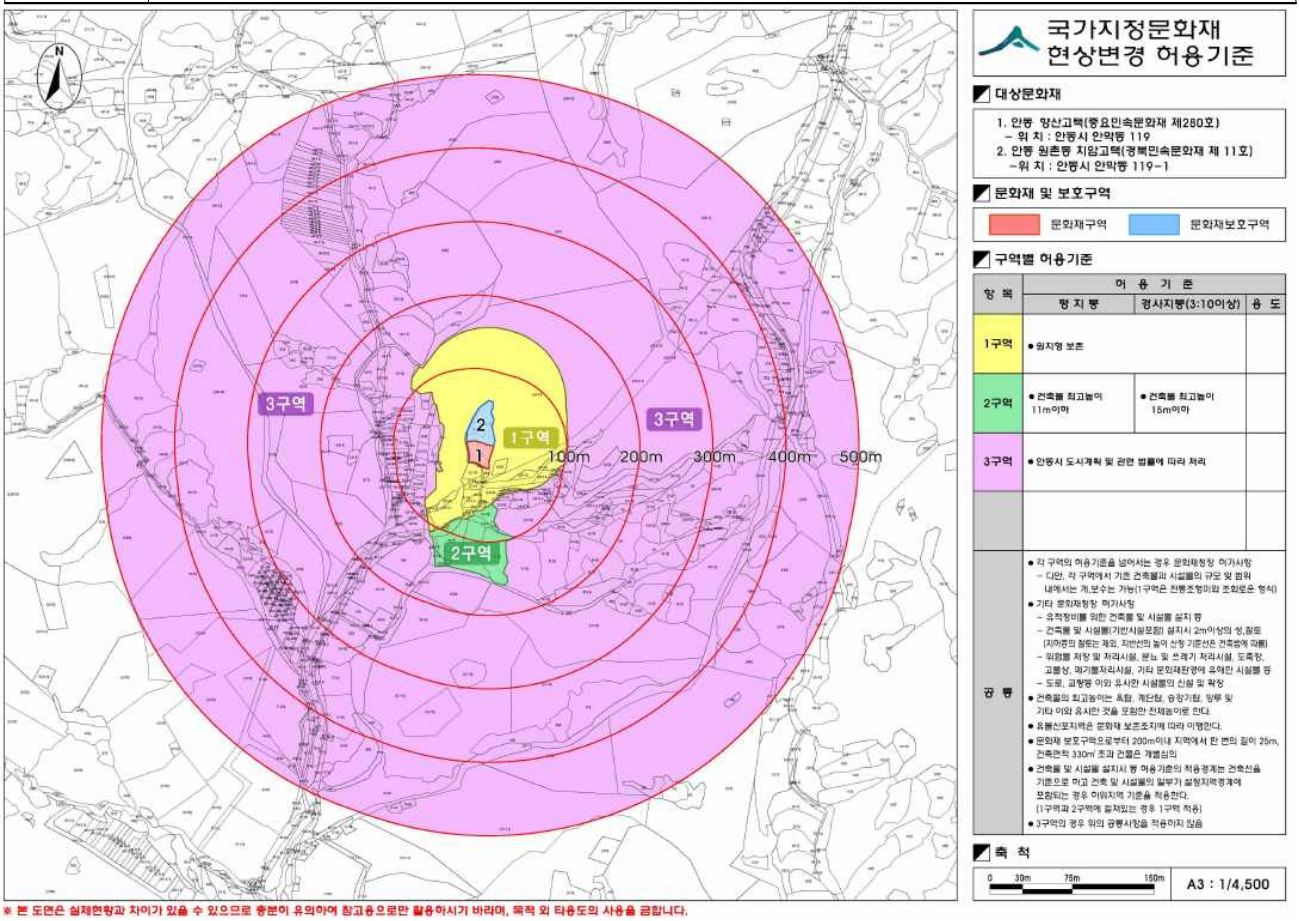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안동 향산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97-6

(3) 신청내용 : 「안동 향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 구역	○ 원지형보존	
2 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 구역	○ 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와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 가능 (1구역은 전통 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50cm이상의 성・절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함 ○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경계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라. 주민의견 청취결과

○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 공고기간 : 2015.02.23.(월) ~ 2015.03.14.(토)(20일간)

○ 공고결과 : 주민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

○ 1구역 '원지형보존'은 '개별심의'로 변경

○ 공통사항에는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사항을 추가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m초과부터 500m까지의 구역에 10층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에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안동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및 제30조

제22조의2(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②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조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m초과부터 500m까지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구역 '원지형보존'은'개별심의'로 함
- 공통사항에 다음 사항 추가
  · 안동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5-04-26

26. 안동 풍산김씨 종택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풍산김씨 종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민속문화재 제38호「안동 풍산김씨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 : 안동 풍산김씨 종택(安東 豊山金氏 宗宅)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33번지

○ 소유자 : ○○○

○ 수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3,160㎡<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풍산김씨 종택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223.22㎡	○○○
〃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1칸반, ㅡ자형	33.33㎡	〃
〃	사당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반, ㅡ자형	40.71㎡	〃
〃	대문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16.48㎡	〃
계				313.74㎡	

- 토지 지정 면적 : 3,160㎡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31	대	572㎡	572㎡	○○○
〃	233	대	2,588㎡	2,588㎡	○○○
계			3,160㎡	3,160㎡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1600년에 건립된 살림집으로. □자형의 정침, 사랑채, 대문채, 사당, 방앗간채, 내외측 등 사대부가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고루 지니고 있는 가옥이다.

ㅇ 이 가옥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현재 종손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중에서 관리하여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ㅇ 현재 종택에서는 제례행위만 행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종손이 다시 거주할 예정으로 있어 종가로서의 민속적인 행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ㅇ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건립된 살림집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기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보다 건립년대가 월등히 이른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안동 풍산김씨 종택은 정확한 건립년대 및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중의 전언과 그 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적 가치를 평가할 때 먼저 배치방법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반가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의 엄격하였던 유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영역의 구분성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큰사랑채와 독립된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영역 등에서도 특성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채부분에서도 평면의 구성이 주변 지정문화재와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큰사랑의 건축기법에서 17~8세기 조선 중, 후반 건축양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 및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건축부분과 더불어 중요민속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풍산김씨 종택은 몸채를 1600년, 큰 사랑채(대청)을 1614년에 건립한 비교적 큰 집으로 i)성리학적 내외법에 따른 차면담, 내외담 등의 엄격한 배치 및 평면의 구성, ii)고식의 창호와 대공 등의 세부양식, iii)안동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읽을 수 있는 공간구성과 지붕구성, iv)유교적 제례의식과

주거민속 등 전통적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 이러한 풍산김씨 종택은 주생활 편의를 위하여 일부 변용한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7세기 사대부의 주거건축 정체와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내력과 그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주거문화유산으로 중요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정명칭

- 신청명칭 : 안동 풍산김씨 종택
- 검토(안)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소재지 + (택호·당호·아호)”에 따라 “안동 허백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Heobackdang House, Andong

바. 참고사항

(1) 안동시 의견

○ 안동 풍산김씨 종택은 건립된 이래로 풍산김씨의 종가집으로 의식주, 제례의식, 생업도구, 신앙 등에 관한 민속을 잘 보존하고 있으므로 전통가옥으로서의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류층 양반의 한옥으로 한옥주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자산이다.

(2) 경상북도 의견

○ 안동 풍산김씨 종택은 고방, 마구가 개조되고 부재의 개체 흔적이 보이나 배치상 중문 앞에 내외벽,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내외담을 두되 내통을 위한 쪽문을 두는 등 당시 엄격했던 유교적 공간성이 잘 남아있다. 아울러 3칸통 규모의 넓은 정지가 마당쪽으로 개방된 점, 2칸통 안방 중 1칸 상부를 더그매로 꾸민 점, 고식의 창호 등 17세기 건립 당시의 주거생활 및 사회상을 살필 원형이 잘 남아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신청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정명칭은 “안동 허백당”으로 함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안동 풍산김씨 허백당 종택 조사 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대구대학교 교수

2.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安東 豊山金氏 虛白堂宗宅)

4. **입지환경과 문화재 현황**

풍산김씨의 500년 세거지인 오미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주택으로,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풍산김씨의 시조인 김문적(金文迪)은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대안군 김은열의 11세 손으로 풍산현에 살면서 고려때 좌리공신에 책록되어 판사사에 올라 풍산백(豊山伯)에 봉해졌는데,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기일세(起一世)하여 관향(貫鄕)을 풍산으로 삼았다. 김문적의 손자인 김연성(金鍊成)은 고려 충열왕때 문과에 올라 찬성사를 지내고 풍산의 오미리에 별장을 두었는데, 후손들이 벼슬살이를 하면서 송도에 거주하다가 조선 개국과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풍산김씨 오미리 입향조는 8세 김자순(金子純)이다. 김자순은 형인 김자양(金子良)이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죽자 화를 피하여 선대의 별업이 있는 이 곳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김자순(金子純)의 손자인 김휘손(金徽孫)과 증손인 허백당(虛白堂) 김양진(金楊震:1467-1535)은 벼슬살이를 위해 상경하면서 한양과 오미리를 내왕하였다. 김양진의 증손인 김대현(金大賢:1553-1602)는 아들 9형제를 두었는데, 5형제가 문과에 문과에 급제하고 3형제는 소과에 급제하였다.

이 마을을 오미동이라고 한 것은 5형제가 한께번에 과거에 급제한 것은 이름다운 일이라는 뜻에서 임금이 지어준 것이라 한다.

또한 이마을은 독립투사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일본천황이 사는 궁궐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金祉燮),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일본 총영사를 사살하고 자결한 김만수(金萬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토오적문(討五賊文)을 전국의 사림들에게 알린 후 자결한 김순흠(金舜欽) 등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마을 내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로 지정된 안동 학암고택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9호인 안동 풍산김씨 영감댁, 경상북도 민속문화제 제149호인 안동 삼벽당,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09호인 안동 죽암서실 등이 있다.

5. **연혁 유래 등**

조선 선조때의 학자인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1553-1602)이 처음 건립하였으나 임진왜란때 소실되었던 것을 학호(鶴湖) 김봉조(金奉祖:1572-1630)가 1600년에 중건하였으며, 정침 좌측에 있는 사랑채는 1614년에 건립하였다.

6.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배치 : 전면의 토석담장 사이에 세워진 3칸 규모의 평대문을 들어서면 정면 7칸 측면 7칸 규모의 □자형 건물인 정침이 자리잡고 있다. 정침의 좌측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인 사랑채가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대문채에서 마주 보이는 중문칸의 전면에는 내외담을 설치하였다. 큰사랑채 뒤로는 담장을 설치하여 안채 좌익사 사이에 내측(內厠)과 장독대를 두었으며, 정침 뒤에는 텃밭을 마련하였다. 우측 사랑채의 뒤에는 방앗간과 장독대를 둔 별도의 공간이 자리잡고 있으며 뒤쪽 담장 사이에 난 협문을 나가면 언덕위에 사당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 정침 : 정면 7칸 측면 7칸 규모의 □자형 건물이다. 중문간을 사이에 두고 우측에는 2칸 사랑방과 사랑마루 1칸으로 이루어진 사랑공간을 두고, 좌측에는 문간방과 주방을 두었다. 문간방은 원래 외양간이었던 것을 방으로 개조하였고 주방도 원래는 고방이었던 것을 주방으로 개조하였다. 고방은 2통간인데, 뒤로는 온돌방 1칸과 부엌 3칸을 연접시켜 좌익사를 이루게 하였다. 부엌의 우측으로는 전면에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둔 2통간 온돌방과 2칸 대청 건너방을 연접시켰고, 건너방의 전면으로는 통래칸, 고방, 온돌방 1칸을 연접시켜 우익사를 이루게 하였다.

○ 큰사랑 :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평면은 좌측 2칸을 통칸으로 처리하여 대청으로 꾸민 후 우측에는 사랑방을 연접시켰으며, 전면에는 계자각을 세운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가구는 5량가의 장혀수장집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 사당 :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맞배기와집인데, 주위에는 방형의 토석담장을 둘렀으며 전면 담장 사이에는 사주문을 세워 사당으로 출입케 하였다. 평면은 전면에 반 칸 규모의 개방된 퇴칸을 두고 내부는 통칸으로 처리하여 우물마루를 깔았다. 가구는 5량가의 초익공집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7. 종합의견

○ 1600년에 건립된 살림집으로. □자형의 정침, 사랑채, 대문채, 사당, 방앗간채, 내외측 등 사대부가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고루 지니고 있는 가옥이다.

○ 이 가옥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현재 종손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중에서 관리하여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 현재 종택에서는 제례행위만 행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종손이 다시 거주할 예정으로 있어 종가로서의 민속적인 행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건립된 살림집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보다 건립년대가 월등히 이른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안동 풍산김씨 종택 조사 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경일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안동 풍산김씨 종택(安東 豊山金氏 宗宅)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안동 풍산김씨 종택(安東 豊山金氏 宗宅)이 자리하고 있는 오미(五美)마을은 풍산김씨들이 약500년간 세거해온 동족부락이다.

마을의 입지는 태백산의 지맥인 동쪽의 아미산(蛾眉山)과 서쪽의 도인산(道仁山), 남쪽의 검무산(劍舞山)을 안산으로 하고 죽자봉(竹子峰)을 배산으로 그 가운데 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풍수적으로도 길지(吉地)라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마을에서는 서쪽의 도인산을 문필봉(文筆峰)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마을에서 문인배출과 직결된다고 보면서 마을 풍수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보적(裨補的) 측면에서 마을 입구에 버드나무를 심고 서쪽 뒤편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명당의 구색을 갖추었다. 또한 오미마을은 독립투사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일본천황가에 폭탄 투척을 한 김지섭(金祉燮)을 비롯하여 일본 총영사를 사살하고 자결한 김만수(金萬秀)의사, '토오적문(討五賊文)'을 작성 배포한 후 자결한 김순흠(金舜欽)선생 등이 오미마을에서 출생하였다.

5. **연혁·유래 등**

마을에 풍산김씨가 처음 정착한 것은 조선 초기 시조 김문적(金文迪)의 8대손 김자순(金子純)때라 한다. 이때의 마을명은 다섯 개의 산줄기가 뻗어 있다고 해서 '오릉동(五陵洞)'이라 불렀으나 을사사화 이후 낙향한 김의정(金義貞)이 '오무동(五畝洞)'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의정의 손자인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의 아들 8형제가 모두 진사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5형제가 문과에 급제하자 인조(仁祖)가 팔연오계(八蓮五桂)라 하여 '오미동(五美洞)'이라는 지명을 하사받게 되었다고 한다.

안동 풍산김씨 종택의 건립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전언에 따르면 조선 선조대인 1576년 신음현감을 지낸 김대현(1553~1602)의 부친인 김농의 명으로 지금의 '영감댁(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9호)'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택의 사랑채를 유경당(幽敬堂)이라고 칭하는 것은 김대현의 조부인 김의정의 호(悠然堂)에서 기인하며, 임란때 소실되어 김대현의 장자인 예조정랑, 사헌부 지평을 지낸 김봉조(金奉祖;1571~1630)가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다.

6. **지정가치 및 근거규정**

- 건축적 특징

ㅇ **배치 ;**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종택은 크게 4개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채 전면에 해당하는 사랑외부공간이 자리하고 정침 좌측으로 독립된 사랑채 1

동이 동향으로 자리하여 다소 이색적 배치가 이루어진다. 종택의 중심인 '口'자형 정침은 뒤편에 토장으로 구획된 여성 가사노동공간이 자리하고 우측 편에도 토장으로 구획된 방앗간채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에 사당으로의 출입문인 협문을 두고 대지 가장 높은 곳에 별도의 사당영역을 위치하여 종택의 공간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제향공간(祭享空間) 역시 대지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켜 당시 유교적 문화가 건축배치에 뚜렷이 반영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ㅇ **정침채** ; 정침채의 평면구성은 사랑부분이 전면 우측에 자리하면서 한 칸 정도 우측으로 확대 시킨 전형적인 경상북도 북부지방 반가의 '口字形' 평면이다. 북쪽으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영역이 자리하고 좌우익사에는 좌,우 외부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례칸을 두면서 수장공간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면 중문칸영역은 외양칸과 고방을 두고 우측 편에 칸살의 규모를 확대 시킨 작은사랑영역이 있어 남녀공간구분이 확실하다. 특히 중문칸 앞에 차폐담장을 두어 외부에서 직접 안채가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머무르고 상례(喪禮)시 빈청(賓廳)이 설치되기도 하는 사랑부분은 정면부분에만 원주(圓柱)를 사용한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로 앞쪽으로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고 온돌방 2칸과 마루 1칸을 두면서 동익사 쪽으로 책방을 두어 내측으로 동선이 연결된다. 온돌방과 대청과는 맹장지 4분합들문을 설치하여 3칸을 통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확장성을 추구하였고, 문틀은 온연귀수법을 지니고 있다.

안채영역은 사랑부분과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퇴칸마루를 두면서 2칸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2칸 온돌방을 두고 부엌과 연결하고 대청 우측은 며느리나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기거하거나 신방이 차려 지기도하는 건너방을 배치시키고 우측으로 툇마루를 두어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하회마을의 충효당이나 양진당의 안채구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부엌은 2칸으로 통례칸과 연결되어 공간이 확장되면서 서익사와 연결되면서 상부에 안방에서 오를 수 있는 다락을 두었다. 책방 한칸과 바닥이 우물마루를 깐 고방 2칸이 중문칸과 연결된다. 중문부분은 중문칸과 좌측으로 외양칸, 고방 한칸을 설치하였으나 외양칸은 현재 온돌방으로, 고방 2칸은 입식부엌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사진 대지에 종택이 자리한 관계로 전면 기단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좌우측면 및 배면은 대지의 형상에 따라 조성하였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사랑은 굴도리 5량구조이며 내진주 위에서 대량과 대량이 합보시켰다. 사랑대청 상부는 연등천정인 관계로 외기반자를 두고 정선자를 걸어 상부가구가 깔끔하다. 그리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일견 독립된 지붕형상을 취하고 있다. 안채는 사랑채와 동일한 5량구조이나 납도리를 사용하였고 온돌방 상부는 노출된 더그매로 처리하여 안동지방 안채 온돌방의 다소 오래된 법식을 보이고 있다. 양익사와 중문칸은 간략한 삼량가구이다.

ㅇ **큰사랑채** ; 중문칸 좌측편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큰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마루를 전면으로 확장시킨 퇴를 둔 건물이다. 이곳은 아들이나 남자아이들이 기거하며 손님이 내방하였을 경우 객실로도 사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상어른이 사랑방을 물러주고 나면 이 곳에서 기거하였다고 한다.

평면구성은 좌협칸과 어칸에 걸친 4칸에 대청을 두고 우협칸에 2칸통의 온돌방을 두고 있다. 대청부분은 전면만 개방하고 측면과 배면은 판벽에 판문으로 폐쇄하였고 온돌방은 대청 쪽으로 2짝 세살궁판문과 외짝 세살문을 두었으나 크기로 보아 출입 용도가 달리 된 듯하다. 특히 배면에 자그마한 벽장을 둔 것은 다소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대청 마루 청판수법이 다소 이색적이다. 배면쪽은 대량방향으로 청판이 깔린 반면 전면 쪽은 도리방향으로 청판을 깔고 귀틀을 외부 쪽으로 확장시켜 전면 퇴를 둔 것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전면에 계자난간을 두어 집의 품격을 높은 것도 주목된다.

팔작지붕 홑처마에 상부가구는 굴도리 5량구조이며 외기반자 설치, 보아지 초각 등에서 집의 장식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마룻대공은 동자주형에 하부에 대량방향으로 받침목을 두고 종량하부를 지지시키는 수법은 고식(古式)으로 독락당 옥연정사, 경주향교 대성전, 봉정사 극락전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정침부분보다 늦게 건립되었다고 하나 건축수법에서는 오히려 정침채보다 고식의 건축수법을 잘 지니고 있다.

ㅇ **사당** ; 종택 뒤편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은 전면에 출입문인 사주문(四柱門)을 두고 주변은 방형 토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획하였다. 사당의 평면은 앞쪽에 퇴칸을 둔 정면 3칸 측면 1칸반 규모의 양편에 풍판(風板)이 설치된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사당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3칸을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칸부분에 하부에 궁판이 설치된 쌍여닫이만살문을 두고 좌우협칸에는 동일형태의 외짝문을 두었다. 그리고 양측면 하벽은 우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와편(瓦片)으로 부벽을 설치하고 상부에 창을 두었다. 사당내부는 우측과 배면쪽으로 신위(神位)를 설치하는 위패단(位牌壇)을 두었다.

전면만 원주를 사용하고 그 외기둥은 방주(方柱)를 설치하였으며 상부구조는 장식성이 없는 간략한 굴도리 5량가로 처리하였다. 막새기와를 사용하여 집의 격을 높였고 목부재에 단청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 과거 사당에는 간략한 단청을 올린 듯하다.

ㅇ **대문채** ;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대문칸을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 한칸과 우측으로 외양칸 1칸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상부구조는 납도리 3량가이며 특별한 건축적 특징은 없다.

7. 종합의견

안동 풍산김씨 종택은 정확한 건립년대 및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중의 전언과 그 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적 가치를 평가할 때 먼저 배치방법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반가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의 엄격하였던 유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영역의 구분성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큰사랑채와 독립된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영역 등에서도 특성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채부분에서도 평면의 구성이 주변 지정문화재와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큰사랑의 건축기법에서 17~8세기 조선 중, 후반 건축양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 및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건축부분과 더불어 중요민속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안동 풍산김씨 종택 조사 보고서

1. 조 사 자 : ○○○,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명칭 : 안동 풍산김씨 종택(安東 豊山金氏 宗宅)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안동 풍산김씨 종택[1]은 풍산 김씨 500년 세거지인 오미마을의 뒤편 동쪽 높은 곳에 주산을 등지고 남동향으로 앉아 있다. 마을은 태백산 지맥이 이어진 동쪽의 아미산(峨眉山)을 청룡, 서쪽의 도인산(道仁山)을 백호, 남쪽의 검무산(劍舞山)을 주작, 학가산 줄기가 뻗어 내리면서 솟은 북쪽의 죽자봉(竹子峰)이 사신사를 이룬 명당으로 '포란형(抱卵形)' 또는 '소쿠리형'이라고 한다. 비보풍수로 마을의 서쪽 뒤편에 느티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고 마을 입구에는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다.

오미마을은 유연당(悠然堂) 김대현(金大賢, 1553~1602))의 아들 8형제가 모두 진사에 이르렀고 그 중 5형제는 문과에 급제하자 인조가 팔연오게(八蓮五桂)라하여 '오미동(五美洞)'이라는 지명을 하사 받았다고 한다. 또 독립투사[2]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종택의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안동 학암고택'[3]과 그 왼쪽에 위치한 '안동 풍산김씨 영감댁'[4] 등 대소종가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종법 질서에 따라 배열한 집들이 풍산 김씨 일문의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처음 지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76년(선조 10)에 14세손 김대현(金大賢, 1553~1602)이 부친의 뜻에 따라 영감댁 자리에서 지금의 터로 옮기면서 지었다고 전한다. 당초 집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현재 종택은 1600년(선조 33) 김대현의 아들 김봉조(金奉祖, 1572~1630)가 다시 지었다. 서편의 큰 사랑채(대청)는 1614년(광해군 6)에 건립하였다.

- 배치 : 평대문채 중앙의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사랑마당 건너편에 작은사랑과 정침으로 구성된 완전口자형 몸채가 자리 잡고 있다. 몸채의 우측 모서리에 작은 사랑 공간을 돌출시키고, 좌측에는 별동의 큰 사랑채를 이어서 배열하고 그 사이에 협문을 설치하였다. 몸채 우측에는 방앗간채가 있고 그 위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곳에 사당이 별곽을 이루고

1)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8호(1982년 지정).

2) 일본 천황 궁궐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金祉燮) 의사, 만주에서 총영사를 사살하고 자결한 김만수(金萬秀), 을사보호조약을 규탄하는 '토오적문(討五賊文)'을 전국 사림에 알린 후 자결한 김순흠(金舜欽) 등이 태어나 자란곳임.

3)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1984년 지정).

4)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9호(1982년 지정).

있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의 앞과 옆으로 펼쳐진 큰 마당이 사랑영역이다. 마당 앞쪽인 대문채의 좌측에는 우물이, 우측 모퉁이에는 외측이 있다. 한편, 큰 사랑채 좌측 마당은 조부상 때 가묘를 만들어 둔 곳이라고 한다. 돌출한 작은사랑 좌측 기단선과 이어지는 곳에 중문간을 차면하는 내외담을 설치하고 구멍 창을 내어 안채에서 출입자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중문간 앞 차면담은 드물기도 하지만 창을 낸 경우는 아주 귀한 모습이다. 큰 사랑채 뒷벽에서부터 정침 상방 뒷벽까지 이어지도록 담장을 쌓고 안채 고유의 영역이 되도록 했다. 안채의 좌 익사 옆 뜰에는 장독대와 내측이 있고, 정침 뒤뜰은 텃밭이다. 우익사 옆의 방앗간채 앞에는 큰 장독대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담장을 둘러서 여성 전용 작업 공간이 되게 하였다. 큰 사랑채와 정침 상방 뒷벽으로 이어진 담장, 작은 사랑 공간 옆뜰과 방앗간채 사이에 협문을 둔 담장은 내외담이다. 사당의 출입은 정침의 여성 전용 작업 공간을 지나서 뒷 담장에 나있는 협문을 통과하여만 드나들 수 있다. 위계적으로 가장 상위 공간에 속하는 사당의 신성한 장소성을 갖게 한 동선 처리이다.

중문간 앞의 차면 내외담과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한 내외담의 남녀 분리와 사당의 독립적 영역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공간 구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이른 시기의 배치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안채** : 口자형 정면 가운데 나있는 중문을 들어서면 각 2칸씩의 안방과 안대청이 가로로 놓여 안마당을 향하고 있다. 안마당을 향하여 좌우로 길게 배열한 안방의 형식은 안동지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좌측의 부엌 앞으로 책방 1칸·고방 2칸이 뻗어서 좌 익사, 안대청 우측의 건넌방 앞으로는 통래간 1칸·방 1칸·책방 1칸이 이어져 우 익사를 이룬다. 중문간의 좌측은 마굿간이고, 우측은 작은 사랑방 부엌이다. 작은 사랑방 부엌의 안마당 쪽으로는 정침이 직시되지 않도록 차면벽을 설치하였다. 안방 앞에는 툇마루를 두고, 부엌·건넌방·좌 익사 책방에는 벽장을 설치하였다. 안방의 좌측 간과 부엌 위에 큰 다락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안방 뒷벽을 벽장 폭 만큼 확장하고, 좌 익사의 고방은 입식 주방으로, 마굿간은 문간방으로 변용하고 있다. 안대청의 배면은 통머름에 준하는 문지방을 둔 띠장널창을 달고, 청방간에는 작은 창과 외여닫이 굽널 띠살문을 내었다. 통머름식의 배면 창호와 창과 문으로 구분한 청방간의 창호형식은 시기[5]를 올려 볼 수 있는 고식에 속한다. 중문간 옆 작은 사랑방 부엌의 예스러운 자귀질 판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자연석 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 막돌 덤벙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운 민도리 장혀수장 집이다. 가구는 5량 가로 꾸밈새의 안정감을 주는 3분변작으로 동자주를 낮게 세운 모습이 고졸하다. 대량 위에는 제형 판대공이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대청 중앙 기둥 상부의 보아지에만 안쪽을 초각하여 돋보이게 했다. 옥개부는 홑처마로 구성하고 정침의 내림마루와 좌·우익사의 용마루가 연결되도록 지붕을 얹었다. 이 경우 정침 배면 양단의 지붕은 반박공지붕이 되는데, 이런 모습은 경북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좌·우 익사와 중문간은 3량 가로 가구한 민도리형식이다.

---

5) 학초정 및 정침(1650년 건립, 경상북도 민속자료 64호), 오죽헌(1435년 건립, 보물 165호) 등의 청방간 창호형식과 유사함.

○ **사랑채 :** 사랑공간은 종손이 거처한 몸채 좌측 별동의 큰 사랑채(대청)와 차종손이 묵는 몸채 정면 좌측에 돌출한 작은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사랑공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좌로부터 전퇴를 둔 사랑방 2칸과 사랑마루 1칸이 놓여 있다. 2칸 사랑방 사이에는 네짝 미서기문을 시설하고, 좌측칸 뒤에는 벽장을 두었다. 사랑방의 띠살창과 사랑마루의 울거미널 창은 시기를 올려 볼 수 있는 통머름 위에 나있다. 자연석 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 덤벙 초석을 놓고 정면 4본만 원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주를 세운 민도리형식이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사랑마루 상부는 충량을 대량 위에 걸치고 외기틀을 낮게 가구하여 눈썹 반자를 설치했다. 추녀 양측 모서리는 선자연으로 꾸며져 있다. 옥개부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안채보다 높게 얹어 사랑공간의 위용이 드러나게 하였다. 사랑공간의 지붕이 몸채에서 독립적으로 솟아서 높은 시인성을 갖게 된 시기는 17세기 이후부터다.

큰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좌측 2칸에 사랑대청을 두고 우측 1칸에 사랑방을 배열하였다. 정면에는 계자각으로 장식한 헌함을 설치하여 큰 사랑채의 격을 높였다. 사랑대청의 울거미널 창은 비교적 키가 크며, 통머름식 문지방 구성은 안대청과 유사하다. 울거미널 창 웃틀에 박혀 있는 철원산은 시기를 올려 볼 수 있는 창호 철물이다. 청방간을 창과 문으로 구분한 모습도 안채의 모양새와 같은 고식이다. 대청 배면 좌측간 중방 위에 설치한 조그마한 붙박이장이 눈길을 끈다.

구조양식은 자연석을 바른층에 가깝게 쌓은 기단 위에 덤벙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이다. 대청 가운데 기둥에만 안대청처럼 보아지 안쪽이 초각되어 있다. 가구는 5량 가로 대청 상부는 충량을 대량 위에 걸고 외기틀을 낮게 가구하여 눈썹반자를 설치하고 양측 모서리는 선자연으로 꾸몄다. 대청과 사랑방 사이의 개구부 위쪽에는 맞보로 이은 대량 위에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는 화반형 대공을 세웠다. 대공은 위쪽으로 오르면서 좁게 한 동자에 소로를 얹고 그 아래 쪽 양측에 초각한 받침재가 받쳐져 있다. 이런 대공은 아주 오래된 건물[6]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모습이다.

○ **사당 :** 전면에 툇간을 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후 퇴집이다. 정면은 조금 넓게 잡은 어칸에는 두 짝, 좌·우 협칸에는 외짝 굽널정자살 문을 달고, 양측면은 화방벽 위에 붙박이 정자살 창을 설치하였다. 내부는 통간에 마루바닥을 깔고 신위를 모셨다. 불천위 김대현과 현 종손의 고조부를 비롯한 4대조가 모셔져 있다.

장대석 외벌대 기단 위에 방형 정평 초석을 놓고 정면에만 원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방주를 세웠다. 정면 원주 상부는 초익공이고, 나머지는 장혀 수장 민도리형식이다. 익공 위에는 양두를 연봉으로 조식하고 주두 하부 좌우로는 행공을 끼웠다. 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는 동자형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종보 상부에는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옥개부는 홑처마 박공지붕으로 양측에 풍판을 설치했다.

사당 건물의 전체적인 현재 모습은 주택보다 늦은 시기의 양식으로 보이나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

6)아산 맹씨행단(사적 109호), 경주 독락당(보물 413호), 경주 양동 향단(보물 412호)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 **대문채, 방앗간채 :**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평대문으로 가운데 기둥 대문을 내고 좌·우측에 각각 마굿간과 문간방을 두었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장혀 수장 민도리집이다. 가구는 3량 가로 대량 위에 동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고, 홑처마 박공지붕을 얹었다.

방앗간채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칸 집이다. 안쪽에 디딜방아를 두고 안채 쪽으로는 개방하고 나머지는 낮은 중방 아래에만 벽으로 막았다.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워 상부를 가구하고 이엉을 이었다.

6.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풍산김씨 종택은 몸채를 1600년, 큰 사랑채(대청)을 1614년에 건립한 비교적 큰 집으로 i) 성리학적 내외법에 따른 차면담, 내외담 등의 엄격한 배치 및 평면의 구성, ii)고식의 창호와 대공 등의 세부양식, iii)안동지역의 토착적 특징을 읽을 수 있는 공간구성과 지붕구성, iv)유교적 제례의식과 주거민속 등 전통적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이러한 풍산김씨 종택은 주생활 편의를 위하여 일부 변용한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7세기 사대부의 주거건축 정체와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내력과 그 면모를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주거문화유산으로 중요민속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안건번호 민속 2015-04-27

27. 예천 감로루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예천 감로루」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경북유형문화재 제292호「예천 감로루」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예천군수)

(2) 대상문화재 : 예천 감로루(醴泉 感露樓)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허리골길 156-12

○ 소유자 : 함양박씨정랑공파대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1,445㎡<6필지>)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건물면적	소유자
감로루	정자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65.76㎡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희이당(안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48.07㎡	〃
곳간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一자형	14.04㎡	〃
문간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一자형	14.04㎡	〃
계				141.91㎡	

- 토지 지정 면적 : 1,44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104	전	760㎡	122㎡	함양박씨 정랑공파종중
“	105	대	797㎡	642㎡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	121	답	2,546㎡	90㎡	함양박씨 정랑공파종중
“	471	도로	129㎡	62㎡	국(건설부)
“	473	구거	1,478㎡	269㎡	국(농림부)
“	산10-1	임야	1,064,049㎡	260㎡	함양박씨 정랑공파종중
계			1,069,759㎡	1,445㎡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감로루는 박종린(朴從麟:1496-1553)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로, 1600년대 초에 처음 세워졌고 1700년대 중반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다.

○ 재사는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문중에서 관리하여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 시제때는 제수(祭需)를 점검하는 감품(監品), 무후제(無後祭)인 의민단(義愍壇) 제사, 묘를 살피는 요성삼주(繞省三周)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독특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고, 제사의 기능과 함께 여성들의 화전놀이터로서의 기능까지를 간직하고 있다.

○ 1700년대 중반에 건립된 재사로, 건축적인 가치와 아울러 시제때 행해지는 민속문화와 화전놀이 등이 전승되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ㅇㅇㅇ 문화재위원〉

○ 감로루는 17세기 희이정사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며 18세기 중반 이 곳으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건축배치에 있어서 전면에 루가 자리하고 뒤편에 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폐쇄형 '口'자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안동지역의 재사들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希夷齋舍感露樓重建上樑文'이 전하고 있어 현재의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희이당부분은 감로루와는 달리 건축수법이나 평면구성에서 감로루보다는 다소 늦게 건립되었거나 건립 이후 변화가 있었던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과 현재도 문중의 향사가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는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정대상이 된다면 문화재 명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된 감로루라는 명칭은 지방문화재 지정시 재사 일곽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유형문화재인 감로루 단일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원래 명칭인 희이재사(希夷齋舍感露樓重建上樑文 근거)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ㅇ 감로루는 18세기 중반에 중건한 함양박씨(咸陽朴氏) 예천 문중 재사이다. 안동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口자형 중에서 전면에 누를 둔 흔치 않은 재사로 누 재사건축의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료일 뿐 아니라 예천군에서 가장 오랜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ㅇ 또한 누각의 구조양식에 고졸한 모습이 남아 있고, 재사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도 잘 전승되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지정명칭

- 신청명칭 : 예천 감로루
- 검토명칭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소재지 + (택호·당호·아호) + 재사”에 따라 “예천 희이재사”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Huiijaesa Ritual House, Yecheon

바. 참고사항

(1) 예천군 의견

ㅇ 조상의례와 관련한 주요한 유교적 의식영역으로 현재도 용도에 맞게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주변 자연경관과 건축물 또한 건재하기 때문에 누정체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ㅇ 이처럼 감로루는 예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누정건축으로 건축학적 특이성과 더불어 용문면 지역의 독특한 무형문화가 함께 전승되고 있어 대대로 보존되어야 할 귀한 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경상북도 의견

ㅇ 감로루는 조선시대의 문신 정랑공 박종린(朴從麟, 1496~1552)의 묘를 지키기 위하여 1600년대에 지은 재실의 부속건물이다.

ㅇ 가옥은 허릿골 산 중턱 경사지에 위치하여 남저북고의 지형에 자리잡아 뒤편으로 방아 살개처럼 생긴 형제봉이 있고, 좌우로 형제봉의 줄기들이 가옥을 감싸 안는 형국이며, 인근에 후손들인 함양박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금당실마을이 있다.

○ 현재 후손의 두 내외가 거주하고 있어 유지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며, 그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중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지정 명칭은 “예천 희이재사”로 함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예천 감로루 조사 보고서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대구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 명칭** : 예천 감로루 (醴泉 感露樓)

4.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감로루의 주산(主山)은 소백산맥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매봉의 한 줄기인 형제봉이다. 매봉에서 한 줄기는 어림성지에서 망월봉으로 뻗어 맛질마을의 주산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한 줄기는 어림성지를 거쳐 형제봉으로 뻗어 금당실마을의 진산인 오미봉으로 연결되는데, 금당실은 정김록(鄭鑑錄)의 십승지지(十勝之地)로 알려진 대표적인 명당(明堂)으로 알려져 있다.

감로루는 형제봉과 오미봉 사이의 희이곡에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곳을 허리골이라고 부르는데, 허리골은 마을 뒤의 형제봉 아래 낮은 목의 지형이 허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감록에는 금당 북쪽 10리에 피난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곳은 허리골 마을이 있는 곳으로 한국전쟁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으로 피난하였다고 하며 실제로 이 마을은 인민군이나 국군이 한번도 거쳐가지 않아 난을 겪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5. **연혁 유래 및 특징**

감로루는 박종린(朴從麟:1496-1553)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박종린은 1516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2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 후 승문원 정자, 예문관 검열, 승정원 주서,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언, 사간언 헌납, 이조정랑을 지냈으나, 1537년에 김안로(金安老), 김병국(金柄國)의 대옥사건(大獄事件)에 연루되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538년에 처가(妻家)인 감천문씨(甘泉文氏)의 터전인 금당실로 입향한 이래, 함양박씨는 금당실과 맛질을 중심으로 세거지를 형성하였다. 재사는 1600년대 초에 손자인 희이당(希夷堂) 박수겸(朴守謙)이 희이정사(希夷精舍)로 건립하였는데, 박종린의 9세손인 박손경(朴孫慶:1713-1782)의 중건 상량문에 의하면 희이정사가 쇠락하여 원래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 세우면서 희이재사(希夷齋舍)라고 하였다.

6.**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 **건축적 가치**

재사는 경사진 대지위에 서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전면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2층 누각인 감로루를 세웠고 뒤쪽에는 희이당, 문간채, 곳간채를 두어 전체적으로 튼 □자형의 배치를 이루게 하였다.

감로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2층 누각이다. 하층의 평면은 문간을 사이에 두고 좌우측

에는 개방된 공간을 1칸과 구들실 1칸씩을 각각 연접시켰다. 문간 옆의 공간은 원래 내방객이 타고 온 말을 메어두는 곳인데, 2004년 보수공사때 구유는 철거되었다. 구들실은 4면에 토석쌓기하여 외부를 마감한 후 전면에는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상부는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위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5량가의 초익공집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희이당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 2칸 온돌방, 대청, 온돌방을 연접시켰으며, 가운데 3칸의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가구는 대량위에 제형판대공을 세워 마룻대와 장혀를 받게 한 3량가의 소로수장집이다.

문간채는 누각 우측 배면에 자리잡고 있는데, 실제적인 주출입구 역할을 한다, 평면은 좌측에 대문 1칸을 두고 우측에는 온돌방 1칸을 연접시켰다. 지붕은 누각쪽은 팔작지붕이고 희이당쪽은 맞배지붕이다.

외양간채는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문간채와 마주보며 자리잡고 있다. 평면은 좌측칸을 반으로 나누어 출입문과 화장씰을 두었고 우측에는 외양간을 연접시켰다. 지붕은 문간채와 마찬가지로 누각쪽은 팔작지붕이고 희이당쪽은 맞배지붕이다.

○ 민속적 가치

감로루의 주된 기능은 매년 10월 초정(初丁)일에 지내는 시제(時祭)이다. 시제는 감품(監品) - 원위(元位) 제사 - 산신재(山神祭) - 원위 이하 각 지파별 제사 - 의민단 제사 - 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감품은 묘소에 진설하기 전에 감노루 누마루에 먼저 차려놓고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인데, 문중어른인 문장(門長)들의 평가가 좋으면 유사들에게 상으로 술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짚을 넣은 벌주를 마시고 야단을 맞았다. 이러한 시제의 관행은 금당실의 함양박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상숭배를 위한 독특한 전통문화이다.

제사의 진행은 홀기(笏記)에 의거한다. 특이사항은 제관들이 관수(盥手) 후 산소를 3바퀴 돌면서 산소가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며 간혹 잡초를 뽑기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요성삼주(繞省三周)라고 한다.

원위(元位) 제사를 마친 후에는 문중 어른을 중심으로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산신제터는 원위 산소 위쪽의 소나무 아래에 마련되어 있는데, 평상석이 놓여 있다. 산신제는 단헌(單獻)으로 지낸다.

감노루의 우측에는 의민단(義愍壇)이라는 비석과 상석이 있는데, 의민단은 무후(無後)하여 제사를 받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묵묘의 조상들을 위하는 곳이다. 문중에서 시제를 지낸 후 감노루로 돌아오는 길에 제사를 올리는데, 제물의 진설양은 비록 적으나 가짓수는 시제상과 똑 같게 하여 단헌(單獻)으로 간략히 행사한다.

감로루는 시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봄철에는 여성들의 화전놀이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금당실에 거주하는 함양박씨 며느리들과 딸네들은 감노루를 화전놀이터로 이용하였고 간혹 예천읍내에 거주하는 함양박씨 며느리들도 별도로 날을 잡아 감노루에서 화전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 때 화전가를 비롯한 가사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는데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입향조를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를 알현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화전놀이를 제사에서 행함으로서 조상들의 알현과 더불어 야유회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화전놀이를 통해 숭조교육을 하는 것은 재실이 제사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놀이와 교육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7.종합의견

감로루는 박종린(朴從麟:1496-1553)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로, 1600년대 초에 처음 세워졌고 1700년대 중반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였다.

재사는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문중에서 관리하여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시제때는 제수(祭需)를 점검하는 감품(監品), 무후제(無後祭)인 의민단(義愍壇) 제사, 묘를 살피는 요성삼주(繞省三周)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독특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고, 제사의 기능과 함께 여성들의 화전놀이터로서의 기능까지를 간직하고 있다.

1700년대 중반에 건립된 재사로, 건축적인 가치와 아울러 시제때 행해지는 민속문화와 화전놀이 등이 전승되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예천 감로루 조사 보고서

1. 조 사 자 : ○ ○ ○, 한국건축사, 경일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명칭 : 감로루(感露樓)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감로루(感露樓)는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院流里), 일명 허리골에 자리하고 있다. 루의 주산은 형제봉으로 북서측 매봉에서 어림호를 거쳐 뻗어내린 줄기이다. 루가 자리하고 있는 원류리는 용문면 소재지 서북쪽에 위치하고 동으로 상금곡리(上金谷里), 서쪽은 두천리(杜川里), 남으로는 구계리(九溪里), 북으로 내지리(內地里)와 접하고 있다. 부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용문사(龍門寺), 초간정(草澗亭), 금당실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감로루의 전신은 희이정사(希夷精舍)라 한다. 청풍자(淸風子) 정윤목(鄭允木)의 문집에 실린 '희이정사기'를 살펴보면 문중에서는 다소 다른 이견도 있으나 정사는 박종린(朴從鱗)의 손자 희이당(希夷堂) 박수겸(朴守謙)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건물이 자리한 원류리는 일명 '희이'라고도 하는데 정사를 건립한 박수겸이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정사의 규모는 방1칸과 마루2칸으로 이루어진 일자형 띠집(精舍蓋以茅 日間房二間廳)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변에 담장을 돌리고 정사주변에 조경을 하여 경관이 수려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희이정사가 이곳으로 이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감로루 중건상량문의 내용에 '4架 고각은 음준의 집이고 자그마한 선방은 선영의 묘를 수호하는 곳(四架高閣實爲飮餕之堂 十笏禪房便是守塚之戶)'이라며 재사건물의 용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재사 오른쪽 언덕 아래에 금당실 함양 박씨 입향조(入鄕祖)인 정랑공(正朗公) 박종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6.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ㅇ **배치** : 재사의 배치는 남서향으로 건물의 축을 설정하여 경사진 대지 위에 전면에 중층(重層) 감로루를 앉히고 뒤편에 대지를 한단 높게 조성한 후 일자형(一字形) 평면의 희이당이 자리 잡고 희이당 전면 좌측으로 곳간채가, 우측에 문간채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구'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동지역의 대부분 재사 배치와는 달리 4동이 모두 별동(別棟)으로 구성되고 건물들 사이에 담장을 두어 내부는 폐쇄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ㅇ **평면**

① **감로루** ; 두벌대 자연석 기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중층

누각형(樓閣形) 건물이다. 하층 평면은 어칸에 대문을 설치하고 양협칸은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양퇴칸은 토석벽으로 사면을 마감하고 전면에 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과거 협칸에 마구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층부분은 어칸과 양협칸을 6칸 통칸으로 하여 넓은 대청을 두고 양퇴칸에 2칸통의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면 모두 퇴를 두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누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망재(望齋)나 음복석(飮福席)으로 활용되는 대청은 내정(內庭) 쪽으로는 개방되고 전면쪽은 판벽과 통머름 위에 쌍여닫이 골판문을 설치하였으나 골판문은 근년에 개체되었다. 그리고 양쪽 온돌방은 대청쪽으로 하부에 2칸 궁판이 설치된 외여닫이 세살문과 모양은 외짝문과 동일하나 폭이 큰 외짝들문을 두어 공간의 확장성을 기하였다. 그리고 양측면에는 외여닫이문을 매칸 설치하고 정면에는 머름 위에 쌍여닫이 세살문을 두었다. 우측 온돌방에는 벽장을 두었으며 천정은 고미반자로 마감하였다.

상부구조는 판대공을 세운 5량 굴도리가구이며 종량받침은 공아형으로 처리하고 초익공 소로수장양식으로 처리하였다. 초익공 내단은 초각한 보아지 형식으로 장식하였고 연목은 끝걷기하였다. 다만 온돌방 고미반자처리 수법이 일반적 방법과는 달리 충량이 노출되면서 고미혀가 충량에 결구되고 있다. 감로루의 고상식 온돌방 구성은 옥산서원 무변루(玉山書院 無邊樓), 독락당 계정(獨樂堂 溪亭) 등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다.

② **희이당** ; 감로루와 대향하여 자리하고 있는 희이당은 재사관리인이 사용하면서 향사(享祀)시 재관(齋官)들이 거처하는 용도로 활용된 듯하다. 평면구성은 정면 5칸에 측면 1칸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어칸과 좌협칸에 온돌방 2칸을 두고 우측으로 대청과 온돌방 1칸을 두면서 어칸과 양협칸에 걸쳐 반칸 규모의 퇴칸을 두어 동선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좌퇴칸에 부엌을 두었으며 우퇴칸 온돌방 앞쪽에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상부구조는 3량가구의 납도리에 전면만 소로수장으로 처리하였다.

③ **곳간채** ; 희이당 전면 좌측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평면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이다. 우측에 외양칸을 두고 상부는 수장공간(收藏空間)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좌측 1칸은 반으로 나누어 간주(間柱)를 세운 후 외부로 통하는 통례칸과 화장실을 두었다. 상부구조는 간략한 3량구조이고 지붕은 좌측은 팔작, 희이당과 접속되는 부분은 맞배로 처리하였다.

④ **대문채** ; 평면구성에서 1칸 온돌방과 대문칸을 둔 것이 차이 날 뿐 대문채의 형상, 구조 및 규모는 곳간채와 동일하다.

6. 종합의견

감로루는 17세기 희이정사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며 18세기 중반 이 곳으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건축배치에 있어서 전면에 루가 자리하고 뒤편에 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폐쇄형 '口'자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안동지역의 재사들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希夷齋舍感露樓重建上樑文'이 전하고 있어 현재의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희이당부분은 감로루와는 달리 건축수법이나 평면구성에서 감로루보다는 다소 늦게 건립되었거나 건립 이후 변화가 있었던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과 현재도 문중의 향사가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는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정대상이 된다면 문화재 명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된 감로루라는 명칭은 지방문화재 지정시 재사 일곽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유형문화재인 감로루 단일건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원래 명칭인 희이재사(希夷齋舍感露樓重建上樑文 근거)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천 감로루 조사 보고서

1. 조 사 자 : ○○○, 한국건축사, 경북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3. 문화재명칭 : 예천 감로루(醴泉 感露樓)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예천 감로루[7]는 함양박씨 세거지인 용문면 금곡리(金谷里 : 금당실 마을)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용문사로 가는 용문경천로를 따라 2.8km 정도 가다보면 오른쪽에 감로루 이정표가 보인다. 그곳에서 1.6km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오르면 재사 진입로를 만난다.

재사는 진입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경사 길을 따라서 올라서면 계단식 논이 넓게 펼쳐진 농경지 중턱에 주산인 형제봉을 등지고 서향으로 앉은 재사가 보인다. 재사가 자리한 터는 전협후광, 전저후고의 명당 지형 조건을 갖춘 곳으로 전망이 아주 좋다.

묘지는 명당에 자리 잡은 재사 전방의 좌측에 형제봉의 주맥이 흐르는 혈 영역에 입향시조를 비롯한 후손들의 묘 20여기가 층층이 자리 잡고 있다.

재사 일원에는 금당실(金塘室), 용문사(龍門寺), 초간정(草澗亭) 등 용문면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함양박씨(咸陽朴氏) 예천 입향조 박종린(朴從鱗, 1496~1553)[8]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이다. 감로루의 전신은 희이정사(希夷精舍)로 청풍자(淸風子) 정윤목(鄭允穆, 1571~1629)이 쓴 「희이정사기(希夷精舍記)」[9]에 1600년대 초 박종린의 손자 희이당(希夷堂) 박수겸(朴守謙)이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기문의 내용을 보면 희이정사는 원래 방 1칸과 마루 2칸의 초가였으며[10], 노년에 은거하여 소요하고 선산의 망배처(望拜處)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건립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사는 16세기 이후 선비들이 성리학적 자연관에 따라 학문소와 휴식처 기능으로 지은데 비해 희이정사는 재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다르다.

창건 이후 남아 있는 유일한 기록은 박종린의 9세손 박손경(朴孫慶, 1713~1782)의 『남야집(南野集)』에 실려 있는 희이정사 중건 상량문이다. 상량문에는 ⅰ)18세기 중반에 건물이 쇠락하여 원래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 지으면서 '희이재사'라고 하였고, ⅱ)누각, 재사, 문간

7)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1995년 지정)

8) 자는 자룡(子龍). 1516년(중종 11) 진사시 합격, 1532년(중종 2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음. 이후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승정원주서(承政院主書)에 제수되었음. 홍문관에 들어가 정자(正字)·저작(著作)·박사(博士)·수찬(修撰)으로 승진을 거듭하였음. 그 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다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사서 및 문학을 겸직하였으며, 사간원 헌납과 이조 정랑에 이르는 동안 경연의 시독관을 겸직하기도 하였음.

9)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윤목 문집 『청풍자선생문집』의 「잡저(雜著)」에 실려 있음.

10) 精舍蓋以茅。一間房二間廳。

채, 외양간으로 구성하고 누각은 '감로루', 재사는 '희이당'이라 하였으며, iii)조상을 모시는 공간, 소요하는 공간, 수학하는 공간, 회합하는 공간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10월 시사(時祀)를 공손히 지키고 서리와 이슬 맺힌 길을 걸어와 경배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와 후손들의 결속을 통해 '겸손'과 '공경'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중건 이후의 건축 내력은 알 수 없으며, 현재 건물은 1998년과 2004년에 보수가 이루어져 보존과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 **배치** : 재사로 이르는 언덕을 올라서면 전저후고 대지의 전면에 중층 누각이 크게 자리잡고 뒤쪽에 누각(감로루)과 대향한 희이당(안채)이 가로로 길게 놓여 있고 그 앞쪽 마당 좌·우측에 각각 곳간채와 문간채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누각과 3동의 건물이 튼ㅁ자형을 이룬다. 누각과 문간채 및 곳간채 사이는 낮은 돌담을 막고 안채 뒤에는 토석담으로 안채 양단 우주와 연결되게 ㅁ형으로 둘러 쌓았다.

- **누각(감로루)** : 누각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집이다. 하층은 가운데 출입문이 나있고 양측 온돌방 아래는 아궁이와 굴뚝을 낸 온돌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상층은 중앙에 대청 3칸을 두고, 좌·우측에는 각각 1칸씩의 온돌방을 배열했다. 동쪽 방 뒷벽에는 조그마한 벽장이 갖추어져 있다. 상층의 사방으로는 계자각 난간을 두른 헌함을 설치하고 뒤편 마당에서 대청의 동편 첫째 간으로 오를 수 있게 계단을 시설하였다.

  감로루의 누는 강당 기능을 하는 건물이 없어 누가 강당 기능을 겸하는 유형에 속한다.[11] 이곳에서 문중회의, 집사분정, 음복례, 망례 등이 이루어진다. 양측 온돌방은 제관(참제인)실로 참제인들이 묵는데 동쪽 방이 상노인방이다. 대청 배면에는 통머름을 들인 두 짝 울거미널 창을 내고, 청방간에는 2분합굽널띠살 들어열개 문을 달았다. 통머름과 분합수가 늘어나기 이전의 비교적 폭이 넓은 들문, 온연귀로 짜고 중방 없이 문얼굴만 드러나게 한 온돌방의 창호는 시기를 올려 볼 수 있는 고졸한 모습이다.

  기단은 자연석을 바른층과 허튼층으로 혼용하여 쌓고 막돌 덤벙 초석을 놓고 누 상·하주 모두 원주를 세웠다. 기둥 상부는 초익공계로 익공쇠서 하단은 연봉이 조식되어 있고, 주간에는 소로로 수장되어 있다. 가구는 5량 가로 3분변작하여 대량 위에 동자주행공을 결구한 낮은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제형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지지토록 했다. 온돌방의 고미반자 양측면 중앙에는 지붕의 합각부를 받는 곡재 충량의 뒷 뿌리가 보인다. 옥개부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얹었다.

- **안채(희이당), 곳간채, 문간채** :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좌로부터 부엌·안방·대청·건넌방 순으로 놓여 있다. 안방은 관리인이 거처하고, 건넌방은 유사가 묵는 실이다. 안방 앞에는 툇마루를 두고, 건넌방 앞에는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곳간채는 정면 2칸, 측면 1칸이다. 좌측 1칸은 양분하여 바깥 출입문과 화장실 공간으로 이용하고, 우측간은 외양간으로 현재 수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

11) 영덕 화수루 일곽(안동권씨 문중, 중요민속문화재 260호), 영덕 사암재(재령이씨 문중,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06호)이 같은 유형임.

문간채도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이며, 1칸은 기둥대문간이고 1칸은 문간방으로 제물 보관실로 쓴다.

세 건물 모두 자연석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장혀수장 민도리 집인데, 희이당은 정면에 쪽소로로 장식하였다. 옥개부는 모두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口자형 재사는 안동문화권[12]에서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누를 갖춘 재사는 안동(9개소), 봉화(8개소), 영덕(3개소), 예천(2개소)[13], 영주(2개소), 청송(1개소) 순으로 나타난다. 재사에 누가 처음 세워진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감로루는 18세기 중반에 중건한 함양박씨(咸陽朴氏) 예천 문중 재사이다. 안동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口자형 중에서 전면에 누를 둔 흔치 않은 재사로 누 재사건축의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료일 뿐 아니라 예천군에서 가장 오랜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누각의 구조양식에 고졸한 모습이 남아 있고, 재사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도 잘 전승되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안동을 중심으로 한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 속함.

13) 함포재사(咸浦齋舍) : 1893년 중건, 안동권씨 제곡 문중,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505 소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455호, 2003년지정